

첨단소재의 총본산을 꿈꾸는 「가람테크」



생물환경과장 최형기

국도를 따라 충남 천안으로 향하다보면 평택을 조 금 지나서 아파트나 지었음직한 아담한 작은 구릉위에 자리잡은 「가람테크」는 자동차용 내장재 생산전문기업으로 출발하였다. 1998년 4월에 설립된 「가람테크」는 자동차내장재로서 도어트림, 트렁크트림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여 01년 76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금년에는 2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니 종업원 25명에 자본금 15억원인 회사로서는 꽤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비칠만하다.

「가람테크」의 특징은 다른 부품업체와는 달리 현대, 르노삼성, 기아, 대우 등 완성차 4사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품업체는 특정 완성차 업체에 종속되다시피하여 자사의 상황이 어렵다고해서 다른 완성차업체에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현실이기에 「가람테크」는 진짜 능력 있는 회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사 서덕현 사장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던 현대엔이지만 그의 인간성이나 능력을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니 서덕현 사장이 하는 말에 믿음이 갔다.

“기술표준원에서 수년간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완성한 세계 최초의 복합소재 제조용 sheet M/C으로 섬유계 복합재료인 가람판(KARAMPAN)과 가람포(KARAMPOB)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인 가람포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내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고급내장재로 납품중에 있어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람판은 고급건축용 내장재로 방향을 전환해서 대기업과의 한판승부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 건축용 내장재시장이 8조원이니까 5%만 점유하면 4000억원은 금세 되겠더라고요, 현재 서너군데 신축 아파트에 납품중입니다.”

자동차내장재용 소재 메이커인 「가람테크」가 자동차시장은 안정적이라고 보고 창업 4년만에 건축시장을 새로운 주매출처로 하겠다는 것이다. 웃으면서 한 얘기라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판단했지만 서덕현 사장의 추진력이면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람테크」의 서덕현 사장은 년매출 수백억원을 올리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IMF의 뒷서리를 맞고 그대로 주저앉은 경험이 있다. 그때도 오로지 자

동차용 소재와 부품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 납품했는데 IMF가 국내 자동차시장을 한순간에 와해시켜버렸던 것이다. 그런 서덕현 사장이기에 매출의 욕심보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왕 생산하는 제품이니 건축용 시장으로 용도를 다변화할 생각도 할만하다고 생각했다.

서덕현 사장은 지금도 전혀 어음을 끊지 않는다. IMF의 충격이 무척 컸던 모양이다.

「카람테크」의 사훈은 창조정신, 적극적 사고, 인화 단결이다. 서덕현 사장의 경영 방침은 혁신적인 기술 구축,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차별화된 경쟁체제 구축, 인간존중의 복지경영실천이라고한다.

그의 경영방침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카람테크」는 신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98년 창사이래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산기반사업 등으로 복합재료 제조장치의 개발과 고단열성 흡차음계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환경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친환경적 소재개발과 소재의 리사이클링 기술개발을 해왔다. 카람테크는 지난 4년간 총 7건의 대형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특허 8건과 국제특허 1건을 보유하고 있다.

「카람테크」는 벤처기업으로서 우량기술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개발한 「건축용 흡차음 마감재 제조기술」로 한국신기술인증(NT마크)를 받았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ISO 9002, QS9000인증을 획득하였고 금년6월에는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카람테크」 중앙연구소는 공장동선에 마치 고급 오피스텔같은 3층건물을 새롭게 지은 후 설립되었다.

이 중앙연구소건물은 그 일대에서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면 3층건물이 마치 랜드마크타워로 보인다.

중앙연구소 소장으로는 기아자동차의 연구부서 간부출신인 옥성현 상무가 부임하였으며, 석사출신 5명을 신규채용하고 현재 박사급 연구원을 풀썩중이라고 한다. 서덕현 사장은 중앙연구소를 붙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서사장은 연구하는 기업답게 서재에 가득한 전공서적을 보면서 오늘도 신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카람테크(KARAM TECH)」라고 회사이름을 지은 뜻을 물었더니 서덕현 사장은 첨단기술과 소재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는 의미란다.

Korean Agency for Representatives of Advanced Materials & Technology의 약자라고 귀뜸하는 서사장의 얼굴에서 오늘도 첨단소재의 한국 총본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부진 의모에서도 강한 힘을 느낄수 있는 서덕현 사장은 그 힘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인 자동차시장과 건축시장을 양손에 거머쥔 꿈을 꾸고 있다. 밝히길 꺼려했지만 서사장은 골프도 언더급(?)이라고 한다. 한 간부는 무엇이든지 뜻한바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추진력이 있다고 귀뜸한다.

서덕현 사장은 사원복지에도 남달리 신경쓰고 있지만 육영사업쪽에도 크게 기여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현재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총연합회장」으로 교육사업지원에도 매우 열심이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다. 자동차 시장을 넘어 첨단 건축용내장재 시장에서 글지의 기업으로 우뚝서고자 하는 서덕현 사장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업체탐방

【첨 부】



본사 및 연구소 전경



공 장 전 경

